

  제주특별자치도 <small>Jeju Special Self-Governing Province</small>		2026. 03. 06.(금) 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	
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<small>Jeju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and Scholarship</small>	보 도 자 료 PRESS RELEASE		경영기획부장 김재필 ☎ 726-9970	경영기획부원 고연주 ☎ 726-9971
	동영상(웹하드) : 있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	사진 : 있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	

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, 도지사과 함께하는 현장 소통 간담회 개최

- AI 시대·에너지 대전환 대응 평생교육 정책 관련 직원들과 소통 -

-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6일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(원장 진희종)을 방문해 기관 주요 업무를 청취하고 임직원들과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.
- 이날 방문은 제주 평생교육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.
- 오영훈 지사는 업무보고에 앞서 진흥원 내 명예의 전당을 둘러보며, 제주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장학금을 기탁한 기탁자 현황과 지난해 최초로 시행한 명예직능학위 수여 현황 등을 확인했다.
- 이어 열린 업무보고에서는 제주도민대학 운영,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평생교육, 인재육성 장학사업 등 진흥원의 주요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.
- 2026년에는 평생교육 지역 격차 해소와 제주 미래산업 인재 양성을 중심으로 서귀포 공유 학습공간 조성, 「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」 설치 기반 마련, 국제 해양물류 전문가 양성 및 에너지·우주항공 산업 이해 도민 교육, 글로벌 런케이션 해커톤 개최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- 이후 열린 직원 소통 간담회에서는 임직원들이 참석해 평생교육 정책과 기관 운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.

- 특히 직원들은 ▲ 제주 인재에게 필요한 핵심 역량, ▲ 읍면 지역 평생학습 접근성 확대 방안, ▲ ‘추격하는 제주가 아닌 선도하는 제주’ 를 위한 평생교육 정책 방향 등에 대해 질문하며 평생교육 정책과 진흥원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.

- 이에 대해 오영훈 지사는 “제주의 미래 경쟁력은 결국 사람과 배움에서 나온다” 며 “도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배움에 참여할 수 있는 평생학습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” 고 말했다.

- 이어 “제주 인재들이 지역에서도 다양한 기회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정책을 확대하고, 도민 삶 속에서 배움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도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” 고 강조했다.

- 또한 “도민에게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를 운영하는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선진 학습 경험이 중요하다” 며 “직원들이 역량을 키우고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 방안도 함께 고민하겠다” 고 덧붙였다.

- 진희중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은 “도지사의 현장 방문을 통해 제주 평생교육 정책 방향과 기관 역할을 함께 고민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” 며 “앞으로도 도민의 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평생교육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” 고 밝혔다.